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28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28
2021년 03월 28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90472001](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90472001)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년 03월 28일

자들을 끌어내라! 예수와 무하마드의 진실된 뜻을 왜곡하여 서로에게 폭탄 던지기를 부추기는 거짓된 종교인들을 추방하라! 민중이여, 국가에게서, 자본주의에게서 이 세계를 되찾자!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 짱깨’ 혐오 표현 사흘만에 31 배” :
[https:// www.hani.co.kr/ arti/ society/ rights/ 93187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0.html)

”Vote to Reinsert \$15 Minimum Wage in...” :
[https:// www.kiplinger.com/ personal- finance/ careers/ salaries/ 602376/ vote- to- reinsert-15- minimum- wage- in- stimulus- bill- fails](https://www.kiplinger.com/personal-finance/careers/salaries/602376/vote-to-reinsert-15-minimum-wage-in-stimulus-bill-fails)

”Workers’ Activism Rises as China’s Economy Slow. Xi Ai...” :
[https:// www.nytimes.com/ 2019/02/06/ world/ asia/ china- workers- protests.html](https://www.nytimes.com/2019/02/06/world/asia/china-workers-protests.html)

차례

| | |
|-------------------------------------|---|
| 1. [물은 답을 알고 있다] | 3 |
| 2. [대충 케장콘 그건 또 뭘..] | 4 |
| 3. [민중의 불길은 총칼로 꺼지지 않는다] | 5 |
| 4. [증오와 혐오는 분노와 투쟁이 아니다.] | 5 |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이런 분노를 거짓된 적에 대한 증오 및 혐오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은 흑인/히스패닉 계열과 동양 계열 간의 혐오를 부추기는 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선을 의심하는 자들을 좌우를 막론하고 대안우파라며 증오의 낙인을 찍는다. 서양 언론은 여전히 무슬림들의 신앙을 표현의 자유라면서 희롱하고 이들을 비호하는 서양 정부들은 그들의 머리위에 폭탄을 떨어트리면서 어떻게 미안마의 독재를 명분 삼아 중국을 인민재로 목조를 지를 궁리한다. 무슬림의 뒤뜰린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명분 삼아 증오의 테러를 성전으로 포장하며 예언자들의 참된 뜻을 깨닫는 자들을 이단이라 취급하며 억압한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사회주의라고 속여 왔던 국가 자본주의를 들켜 지양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가짜 공산주의를 위해 중국 민중에게 몸을 내던지기를 강요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뒤를 봐주는 언론들도 이런 역겨운 행각에 동참하고 있다. 마침 뒤뜰린 중국 공산당을 핑계로 중국 자체를 대상으로 서양 주류들이 혐오 물이를 하는 것에 편승해서 한국의 언론들도 열심히 중국 혐오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행각을 보자니 마치 우리가 심심하면 육하던 일본 국우 세력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져서 도약질이나 온다.

물론 필자도 역겨운 중국 공산당을 보면서 편하게 중국 통째로 증오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매일 아침 9 시나 10 시에 출근해서 점심먹는 시간 1 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8 시간 동안 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별로 쓸 시간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 추악한 세상에 왜 이리 추악한 일들이 가득한지 그 원인을 탐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친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작정 언론이 가리키는 광기의 달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때로는 달을 가리키는 언론의 속뜻까지 파악해야 하며 과연 이것이 진실일지 밝히려는 언론인의 투쟁인지 권력자들의 황금공구 냉을 핏는 추악한 자의 선동인지 구분해야 한다.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실직자, 가정주부, 우리는 모두 같은 노동자이다. 우리는 모두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적당히 일한 후 아늑하게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 아랍인, 히스패닉,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등 모든 소수민족까지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사소한 신체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우리는 너무 추우면 얼어 죽고 너무 더우면 열사병에 걸린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힌두교, 심지어 무교조차도 모두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나름의 보편적인 도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우리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분노가 아니며 적절한 투쟁이 아니다. 우리들끼리는 다소 어렵더라도 사랑과 관용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하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중이며, 우리에게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을 향해 분노와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려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들의 따뜻한 집을 빼앗는 자들에게서부터 집을 되찾아라! 고된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을 독점하고 우리들에게 쥐꼬리만한 월급만 주는 그들에게서 우리들의 생산물을 되찾아라! 우리에게 혐오를 부추기면서 정작 실제로 사람을 싸 죽인 인종 차별자들은 근슬쩍 비호하는 위선

1. [물은 답을 알고 있다]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농성투쟁이 100 일을 넘겼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투쟁 95 일차에 구광모 LG 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LG 트윈타워 앞에서 텐트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이 빌어먹을 자본주의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다. LG 그룹의 계열사 S&I 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은 언제나처럼 용역깡패가 되어 노동자들의 천막을 부수고 짓밟았다. 이러한 폭력 행위 앞에서 경찰은, 국가 폭력은 그들의 참된 주인인 자본 앞에 고개를 조아렸다. 그들은 자본의 폭력을 말리기는 커녕,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 집회”라고, “방역 지침 위반”이라고 몰아세우며 노동자들을 막아세우기에 급급했다. 용역깡패들은 노동자들이 겨우 겨우 세워낸 텐트 농성장에 물을 뿌렸다. 봄이라고 해도 밤의 기온은 여전히 한자리 수에 머무는 지금, 5-60 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에, 차가운 물을 뿌렸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된 LG 그룹 구광모 회장은, 자기 얼굴 한번 보자고 출근길에 텐트를 친 청소노동자들을 굶어 살피시며, 헬기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가 졌다. 지금이 세상의 주인은 너희 자본가들이 분명했던 것 같다. 노무현과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토록 애용하던 물대포가, 이제는 자본가들의 손에 쥐어진 수도 호스로 바뀌었지만, 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투쟁하는 인민대중을 향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목소리조차 닿지 않을 저 하늘 위를 나는 헬리콥터 위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소롭게 바라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대중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LG 자본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물을 뿌려도, 폭력으로 텐트를 짓밟아도, 노동대중은 다시금 텐트를 치고, 저들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하고, 더욱더 그들의 심장부로부터 다가갔다.

그리고 3월 26일,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101 일을 맞이한 날 열린 LG 그룹 주주총회장에, 그룹의 총수인 구광모는 나타나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들이, 이 세상의 주인님네들을, 그들의 파수꾼들을, LG 그룹 주총장에서 구광모가 그려야 했던 것처럼, 자신이 차지한 자리에서 쫓아내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 투쟁의 길에 < 아나키스트 연대 > 는 언제고 함께하겠다.

” 물에 젖은 농성 텐트.. 청소노동자들” 사측의 방해 꼼수” :

<https://news.v.daum.net/v/20210323205007656>

2. [대충케장콘그건또똥..]

지난 2021년 3월 25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한청원이올라왔다. ”비혼모출산부추기는공중파방영을즉각중단해주세요!!!” 라는청원이었다. 청원을시작한이는”슈퍼맨이돌아왔다” 라는프로그램에비혼출산을진행한방송인사유리씨의출연소식에”결혼자체를기피하는한국의현실” 에서”비혼출산이라는비정상적인방식이마치정상인것처럼여겨질수있는일본여자를등장시키는것은있을수없는일” 이며”바람직한공영방송의가정상을제시해주시길요청한다” 고적었다.

이번단평의제목과같이, 할수있는말이사실많이없다. 그건또똥... 하는케장콘하나를청원을제기한이에게보내주고싶은마음이간절하지만그럴수없으니단평으로나마이병찐마음을달래보고자한다.

우선, 도대체그놈의”바람직한가정상” 이라는것이무얼의미하는것인가? 남성과여성이결혼이라는제도를통해부부가되어자녀를출산해남성이일을하고여성이집안일을하는그런그림을이야기하는것인가? 그렇다면남성과여성이결혼했는데아이를낳지못하는경우는바람직하지못한것인가? 아이를낳지않고자신들의삶에더중요도를두는것은올바르지않은가? 남성과남성, 혹은여성과여성이결혼하는것은천벌을받을일인가?

아니애초에, 결혼이라는제도를벗어나면사회부적응자인가? 남이사결혼을하든말든, 결혼을백번하든말든, 결혼하지않고아이를낳든말든무슨상관이란말인가? 결혼이라는제도가그렇게소중하면청원인본인이한백번결혼해서서그들의아이를낳아주면되지않을까?

공영방송에서아직소수인삶의모습을다루면안되는것인가? 그렇다면공영방송은다수 (라는것이실재하는지도잘모르겠지만) 만을위한방송이지’공영’ 방송은아니지않은가? 청원인은그렇다면아직수적으로소수를차지하고있는’혼자사는이들의이야기’ 를다루는프로그램”나혼자산다” 의폐지요구는왜하지않는것인가?

굳이더말을길게늘여야하는지잘모르겠다. 정말” 그건또똥..”

”사유리’슈돌’출연에...”비혼모출산부추기는방송중단”靑청원해프닝”

<https://news.imaeil.com/Broadcast/2021032618423417351>

3. [민중의불길은총칼로꺼지지않는다]

미얀마에서군부독재에대한민중의저항이갈수록격화되는가운데지난 27일‘미얀마군의날’에도다시무수한민중의피가흘러지고말았다. 이날하루에만사망자가최소 114 명을넘어서고다수의어린이까지희생된최악의참사다.

그어떤정당성도없는미얀마군부가가진거라곤그거밖에없는총칼을이용해그추악한정권을어떻게든지탱해보려사방에서피를보며미쳐날뛰고있다. 이런참사를내놓고도가증스럽게도‘보호자’를자처하는가? 그알량한정권을위해얼마나많은피를흘렸고흘려야할것인가.

하지만미얀마민중은굴하지않는다. 노동자들은총파업을결의하고학생들은거리로나서고있으며대중의저항은불길이되어번지고있다. 민중의항쟁은총칼따위로막을수있는것이아니다. 반대로그들이불의를행할수록민중은분노할것이며투쟁은더욱불타올를것이다.

우리아나키스트연대는이미말했던바, 저추악한군부정권이쓰러지는그날까지한국에서도미얀마민중의투쟁에끝까지연대할것이다.

”미얀마’국군의날’시위대에최악유혈진압...하루사망자최소 114 명” : <https://www.vop.co.kr/A00001558889.html>

4. [증오와혐오는분노와투쟁이아니다.]

세상이분노로차오르고있다. LH 및정부인사들의추악한비리에온국민이분개하고있다. LG 와같이비열한자본가들이청소노동자를소모품취급하는현상을보고동료노동자들이분노하고있다. 이런분노는단순히한국만의이야기가아니다. 미국에서는약속과달리최저임금상향안이통과하지못하고있다는자칭진보정치인들과언론의기만에대해깨달으면서분노하기시작하고있다. 미얀마와같은많은개발도상국에서는군사정권과독재자들이민중을학살하기에그들의가족과친구들이분노한다. 서아시아의무슬림들은‘테러와의전쟁’이라는명분하에자신들을폭격하고그것도모자라자신들에게’광신도’와‘테러범’이라는낙인을찍는위선적인서양정부에분노한다. 심지어모든민중의눈과귀, 입을막는다는중국에서조차도선대의죽어간공산주의자들이꿈과전혀다른거짓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를알아보기시작한노동자들은분노의함성을준비하고있다. 우리는점점언제혁명의불씨가세계를삼켜도이상하지않은국면까지다다른것이다.

그리고아마도자본주의의이름아래에무의식적으로총동맹을하고있는기득권정치세력, 자본가들, 국가의행정은물론사법세력까지이런정조를느끼고있을